

# 영암군, 서울 '농특산물직거래장터' 대성황

## 조계사에서 영암 농특산물 판매 교두보 확보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음력 2월 초하루 신중기도 입재 법회를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경내에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조계사 영암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는 전동평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조재기 의장, 노영미 군의원, 박대진 NH농협은행부행장, 오정현 농협 군지부장, 박도상 영암농협장, 설해영 사모와 여성단체협의회장단, 재경 영암군향우회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사에서 처음 열린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영암에서 바로 올라온 달마지쌀 골드, 서리태, 찰흑미 등의 잡곡류와 황토고구마, 딸기, 방울토마토, 대과 등의 다양한 농산물과 무화과 잼, 대봉감 말랭이, 흰 민들레즙 등 약 80여개 품목이 선보였으며,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신중기도는 매일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열리는데 약 2,000여명의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며, 이곳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연 14회 정도 열리며, 영암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조계사 직거래장터를 이틀간 방문해 영암군을 알리면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 및 판매했고, 조계사측에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전동평 군수는 "이번 직거래장터는 영암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영암군과 조계사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조계사를 찾는 시민에게는 가치'를 주는 도농상생의 장의 결연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승준 470-2380)

# 군 도포면, 문예체육진흥회 정기총회 개최

## 양수군 신임회장 "축제 및 체육대회 적극 협력"



영암군 도포면 문예체육진흥회 실에서 2019년 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올해 문체위 신임회장에 양수군 씨, 사무국장에 최광훈 씨가 선출되어 2019년 도포면 문예체육진흥회를 이끌게 되었다.

양수군 신임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문예체육진흥회 운영에 힘써주신 전임 조만성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왕인문화축제와 제27회 전남 장애인 체전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현 도포면장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회장단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포면 발전을 이끄는 모범적인 문예체육진흥회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무팀장 민종필 470-6292)

# 영암군민장학회, 장학생 신청·접수

## 종합학력우수학생 장학금 외 12개 부문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이사장 전동평 군수)는 3월 29일까지 '2019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영암군민장학회는 미래 영암의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도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분야는 종합학력우수학생 장학금 외 12개 부문이고, 관내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고 관외 학생 및 대학생은 군 총무과로 직접신청하면 된다.

장학생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는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및 군 총무과



(061-470-2123), 관내 학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총무과장은 "이번 영암군민장학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5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경 470-2123)

# 영암군 보건소, 한방난임치료

## 대상자 모집...저출산 극복 기대

영암군은 "보건소 주관으로 난임 여성의 임신 성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 "선정된 대상자는 4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를 받게 되며 신청은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이며,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혈액검사 결과지, 난임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암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며 확정된 대상자는 4개월간 지정받은 한의원에서 침과 뜸 치료를 받고 지원 받은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

# 군 농기센터,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강소농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強小農)' 육성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자립하는 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600명의 강소농을 육성하여 농업의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장운영을 위한 경영자로서의 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다.

강소농 선정 농가에는 전문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모임체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활동



을 지원한다. 박종삼 과장 "강소농가의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과 소득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교육팀장 박선미 470-6592)

# 신안군-국립광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및 문화유산 보존·활용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과 13일 국립광주박물관 회의실에서 신안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안해저유물 1만7천여점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 결정에 대해 신안군 사회단체 등의 반대성명 발표, 신안군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신안해저유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전라남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을 군수와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을 건의하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안해저유물



을 매개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뜻이 맞아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안해저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국립광주박물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관장은 "신안해저유물은 국립박물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신안군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담당 문영운 240-8351)

# 신안 암태←광주·서울 간 금호고속 운행

## 신안~서울 간 일일 생활권시대...광주 6회-서울 2회

신안군은 오는 4월 1004대교 개통을 앞두고 지난 해 10월부 터 전라남도 및 금호고속과 수차례 협의 끝에 신안 암태←광주·서울 간 금호고속(시외버스)을 운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서울까지 one-stop으로 오고 갈 수 있어 크게 반기고 있다.

신안 암태←광주 노선은 1일 6회, 암태←서울 노선은 1일 2회 운행을 하고, 운행시간표는 여객선 운항 시간 및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세부 조율 중에 있다. 서울과 1일 생활권시대를 맞았다.

최도청 교통지원과장은 "1004대교 개통과 함께 암태←



서울 간 금호고속 운행이 확정될 예정이다. 인적·물적 교류 활발은 물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상교통담당 김용수 240-8166)

# 신안천일염 수출업체 공동투자 협약 체결

## 솔트인솔트, 수출용 천일염 생산 50억 투입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3일 박우량 군수와 어업회사법인인 솔트인솔트 최승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과 어업회사법인 솔트인솔트는 신안

천일염의 명품화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솔트인솔트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스마트 염전시설을 설치하

고, 가공·유통시설 도입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신안군과 함께 천일염 홍보 마케팅 전문팀을 구성하여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안천일염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위축된 천일염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며, 나아가 천일염을 활용한 체험시설 및 치유상품 개발 등 고차산업화를 통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해양자원과장은 신안군은 민선 7기를 맞아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새롭게 이물질 제거 장비지원, 포장재개선, TV 홀쇼빙을 통한 판매확대, 등급제 및 품질보증제 도입,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소득 증대 및 고차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일염육성담당 황동식 240-8602)

# 신안군, '비비각시 가요제' 5월 개최

## 가수 서정아 '비비각시' 1곡만 부르는 특별한 가요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가정의 달인 5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압해읍 신안 공설운동장에서 '비비각시 가요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비비각시'는 이동창 작사, 정의송 작곡, 가수 서정아 노래로 신안군 압해도에 내려오는 설화

속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로 만들어졌다.

신안군이 주최하고 가요TV(케이비방송)가 주관하는 '비비각시 가요제'는 예선심사(4. 13. 14:00, 신안군청 공연장)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비비각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비각시 공식 카페(cafe.naver.com/bbgaksi)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초대가수로는 원곡가수 서정아를 비롯해 송대관, 신유, 정의송, 정은실, 이동하 등이 출연한다. 시상은 트로피와 함께 대상 3백만원, 금상 1백만원, 은상 7십만

원, 동상 3십만원을 지급한다.

'비비각시'는 신안군 압해도의 작은 모래섬에 얽힌 설화로 구령이로 변한 왕자를 사랑한 공주가 왕자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달라며 빌고 또 빌었다하여 공주를 비비각시라 부르고 이 모래섬을 비비각시 섬이라 한다. (관광정책담당 박상규 240-8355)

